

전 남

2012 국제농업박람회 녹색 미래를 연다

4 유기농업관

‘안전한 먹을거리’ 친환경농법서 찾다

국제 농업박람회장 유기농업관은 790㎡ 규모로 기존 건물들을 활용하고 있다.

유기농업관은 생명농업관·농업미래관·농업예술관 등 3개의 주제 전시관과 달리 유기농업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성한 테마 전시관이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중앙이 정원처럼 초록색 식물로 뒤덮여 있다. 유기농업에서 비료 역할을 하는 녹비 작물을 심어놓은 곳이다.

관람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맨 처음 친환경농업의 필요성과 생산방법에 대해 소개한 패널과 마주치게 된다.

무경운·지렁이 농법서 유기농 비료 녹비까지 병해충 방제약도 폐죽나무 등 식물 추출물로



관객들이 전시관 중앙에 설치된 녹비작물을 따라 유기농업관을 둘러보고 있다.

다. 유기재배 토양과 일반토양을 샘플로 전시해 전남지역 토양의 특성을 알 수 있게 했고 유기농 명인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함께 명인이 개

발한 제품을 전시했다. 무경운농법·지렁이농법 등 유기농법과 비·채소·녹차 등 작물별 유기재배 기술을 만날 수 있다. 녹차 유기재배 코너에선 유기농 녹차 제

품 관람과 함께 녹차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 비 유기재배 코너에선 비의 일생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농자재도 샘플로 전시돼 있다. 말구슬·고삼·폐죽나무에서 뽑은 물질로 만든 병해충 생물방제약과 계과·감초·마늘·생강·속 추출물로 만든 생장촉진제를 만날 수 있다.

전남의 갯벌 생태 모습을 그대로 연출해 놓은 갯벌 수조는 유기농업관 관람의 특별한 재미다. 이 갯벌 수조는 여수엑스포장의 전라남도관에 전시돼 지자체관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살아 움직이는 낙지와 장뽕이, 게를 볼 수 있다.

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 강경문 홍보팀장은 “유기농업의 현수소를 눈으로 확인할으로써 안전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고흥군 농수축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최다

유자·한우·미역·다시마 4개 보유

고흥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역 농·수·축산물 품목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가장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상표권 보호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지리적 표시제’에 현재까지 모두 4종류의 농·수·축산물을 등록했으며, 3개 품목(석류·유자차·마늘)을 추진하고 있다.

또 향토 지적재산 권리와 상표권 보호를 위해 고흥유자차와 고흥석류도 ‘단체표장’ 획득을 마쳤으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도 추진 중이다.

물품질관리원에 2차 보완 신청서를 제출해 ‘지리적표시 등록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고흥마늘’은 3차 현타났다.

군은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로 생산자들이 유기적으로 조직화하고 생산기술도 향상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유통·출하 망 구축 등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품목의 농·수·축산물이 ‘지리적 표시제’를 확보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전체 이미지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맨발로 갯벌에 들어가 자연과 교감해 보세요”

내일 신안 증도서 ‘생태체험행사’

전국에서 처음으로 맨발로 갯벌을 걸으며 생태를 이해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행사가 신안에서 열린다.

신안 다도해생태별연구소(소장 전승수)는 13일 증도 갯벌에서 ‘맨발 갯벌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맨발로 걷는 여행, 당신의 진정한 갯벌체험이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무분별하게 갯벌에 들어가 생물을 잡거나 갯벌을 훼손하는 체험에서 벗어나 갯벌과 생태계를 재미있게 이해하는 생태체험으로 진행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도시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며, 신발과 양말로 발을 감싸면서 자연과의 단절이 시작된 점을 감안해 증도에 서만 즐길 수 있는 ‘맨발 갯벌생태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맨발 갯벌생태여행”은 단순한 생태교육을 넘어 맨발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나와 갯벌 이해하기 ▲나와 우리 함께 되기 ▲나의 발 들여다 보기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다함께 춤을 춰요

담양지역 장애인과 가족들이 11일 담양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담양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군민 하나된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 후원 회장에 황세원 회장 위촉

‘제8회 담양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11일 담양 종합체육관에서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전남 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회장 여운복) 주관·담양 다이너스티CC(회장 황세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축제는 담양 관내 장애인들의 재활의식을 고취시키고, 군민들간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해피 풍물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대숲마을사람들(대표 신성원), 통기타 연주(김철웅), 울드 팝(무상스님), 난

타 공연 등을 선보였다. 또한 연예인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진 2부 행사는 탤런트 박상면의 사회로 김덕숙 무용단·개그맨 웅알스 코미디, 초대가수 이성국·이주영·한수영의 노래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날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는 담양 다이너스티CC 황세원 회장을 지회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여운복 지회장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군민들이 통합하고 정서적으로 서로를 잘 이해해 지역 곳곳이 더욱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세원 담양 다이너스티CC 회장(왼쪽)이 (사)전남 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 후원회장에 위촉된 뒤 여운복 담양군지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 수산고 ‘마이스터고’ 추진 논란

지역민들 “학교발전” “정원감축” 찬·반 엇갈려

완도 수산고등학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교’(전문계 특성화 고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산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인 완도수산고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마이스터

고교 지정을 재신청해 1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실사가 진행됐다. 완도 수산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될 경우 4개교에 80명(전국 40명·완도 40명)의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여기에 진학한 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 등 학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기숙사도 제공된다. 지정 초기에는 기숙사 등 기반조성과 운영비 등 156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와 주민들은 마이스터고 지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완도 수산고 입학정원은 현재 5학년 175명인 이지만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80명으로 대폭 줄게 된다. 이로 인해 수산업에 뜻을 둔 수험생의 완도지역 중학생들은 인문계인 완도고(입학정원 5학년 170명)나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마이스터고 = 졸업생이 취업 후 일과 학습을 병행,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화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8년부터 지정·집중 육성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solar water heating systems. Title: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 접수안내. Includes details about subsidies, application deadlines (2012.10.16),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AS.

Advertisement for '두암골프존' (Doam Golf Zone). Features 'SCREEN GOLF' and 'REAL 18홀 14,000원' pricing. Includes details about membership fees and contact information.